

[증권] 7 월 지표 점검

시장 지표의 급속한 냉각

2018/08/06

강승건

(2122-9181)

neo.cygun@hi-ib.com

최영수

(2122-9213)

yschoi@hi-ib.com

■ Brokerage 지표 점검: 거래대금 및 신용잔고 감소

- 7 월 일평균거래대금은 9.0 조원으로 6 월대비 28.0%, 2 분기대비 35.6% 감소하였음
- 월평균시가총액이 6 월대비 4.7% 감소하였으며 개인매매비중이 3.1%p(7 월 61.5%) 하락하며 회전율이 39.7%p(7 월 122.7%) 하락하였기 때문임
- 신용거래융자 역시 6 월말대비 8.0%(KOSPI -7.2%, KOSDAQ -9.0%) 감소한 10.9 조원을 시현하였음. 신용잔고가 고점을 시현한 5 월말 대비로는 13.1% 감소한 수준임. 다만 예탁증권담보 대출의 경우 18.5 조원으로 0.9% 감소에 그쳤음
- 주도업종의 부재와 개인들의 매매 참여 감소로 3 분기 Brokerage 관련 이익의 기대치 하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- 회사별 약정 점유율은 삼성 6.1%, 미래대우 12.4%, NH 6.5%, 한국 5.3%, 키움 16.9%로 2 분기 대비 각각 -0.1%p, -0.4%p, +0.1%p, +0.1%p, -1.4%p 증감하였음. 개인매매비중 감소로 키움과 미래대우의 약정 M/S 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

■ Trading 및 상품손익 지표 점검: ELS 조기상환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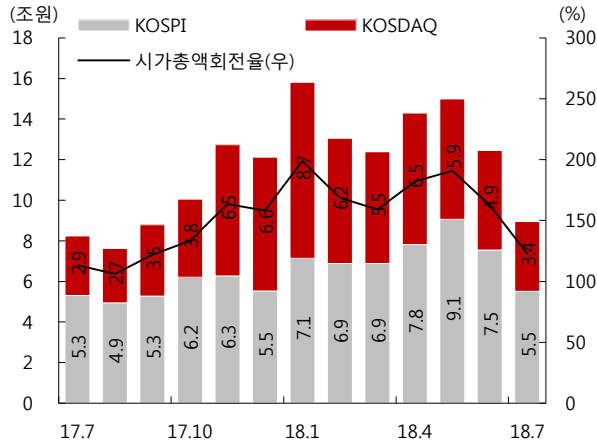
- 7 월말 국고 1 년물, 3 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-2.1bp, +0.3bp 변동하였음. 경기지표 부진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
- 7 월 업계 전체 ELS 조기상환은 1.7 조원으로 급감하였음. 1 분기에 월평균 5.4 조원 2 분기에 월평균 4.9 조원이 조기상환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 분기 ELS 조기상환의 이익 기여도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7 월 조기상환 대상인 1 월에 발행된 ELS 의 지수대가 높았다는 점과 최근 주요국 증시, 특히 HSCFI 등 중국관련 지수의 급락이 조기 상환 급감의 원인으로 판단됨
- 3 분기 증권사의 Trading 및 상품 손익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 금리의 흐름은 중립적인 상황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국관련 지수를 감안할 때 조기상환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

■ 3분기 증권사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음

- 2 분기 증권사 실적 pre-view 자료에서 3 분기 실적의 2 분기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. 하지만 거래대금이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관련 지수의 회복지연으로 ELS 조기상환의 이익 기여도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
- 우리는 3 분기 시장 지표의 부진을 8 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증권사들의 2 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서 반영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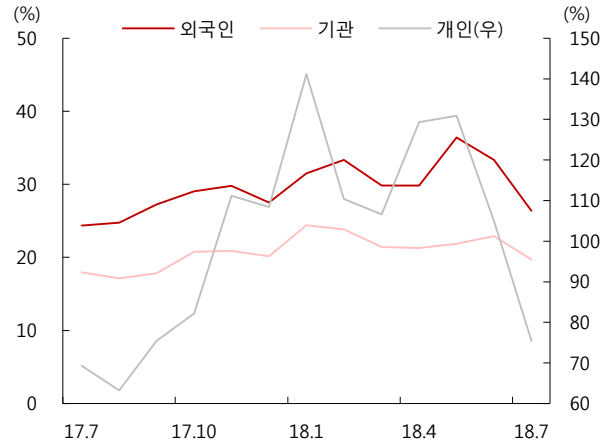
Brokerage 관련지표

7월 일평균거래대금 9.0조원, 전월대비 28.0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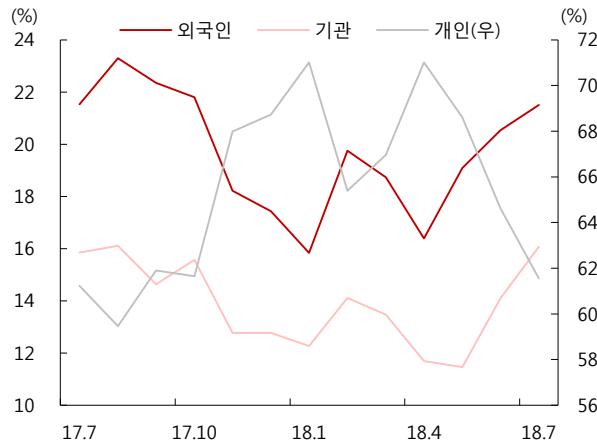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개인들의 회전율이 크게 하락하며 전체 회전을 하락 주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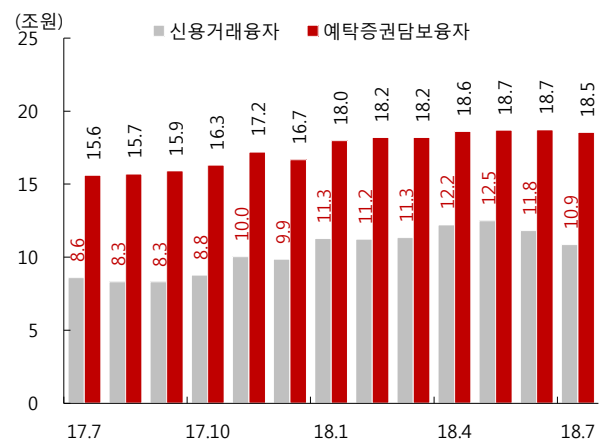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주체별 매매비중 추이: 개인의 매매비중 급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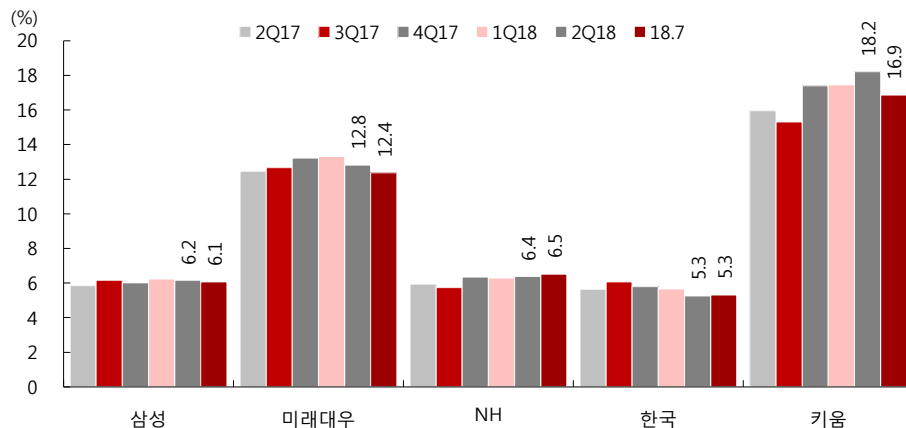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신용잔고 및 예탁담보대출이 5월 이후 감소하고 있음



자료: 금투협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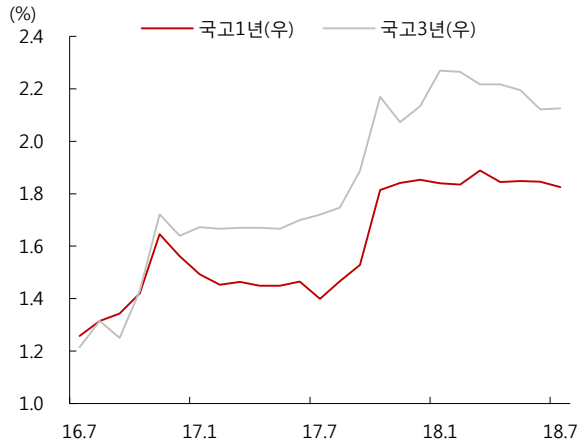
회사별 Brokerage 약정 점유율 추이



자료: Check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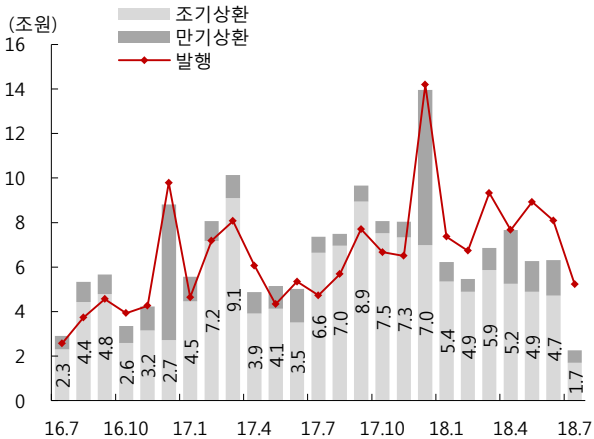
Trading 관련지표

7 월말 채권금리는 6 월말 대비 -2.1bp, +0.3b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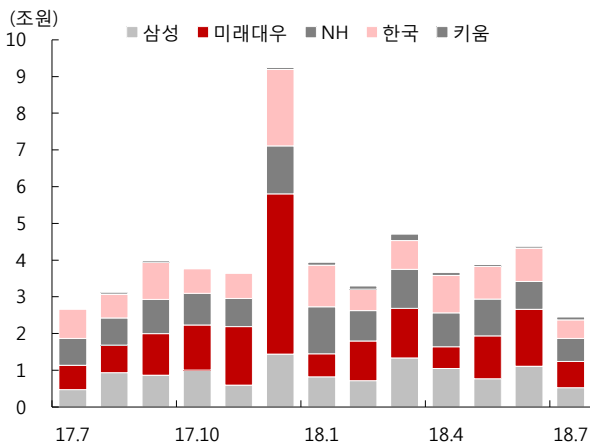
자료: BOK, 하이투자증권

업계 ELS 조기상환 1.7 조원, 2 분기 월평균대비 65.6% 급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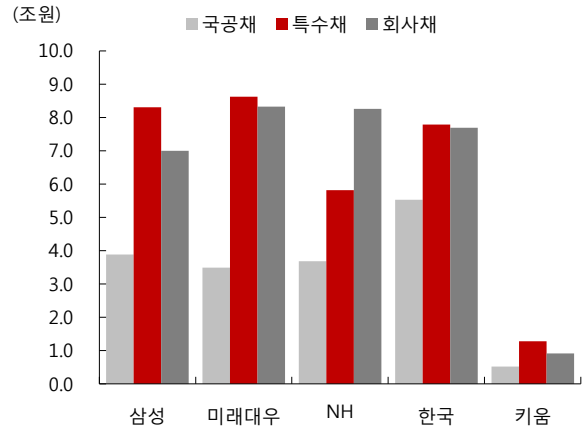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회사별 ELS 발행 추이, 7 월에 발행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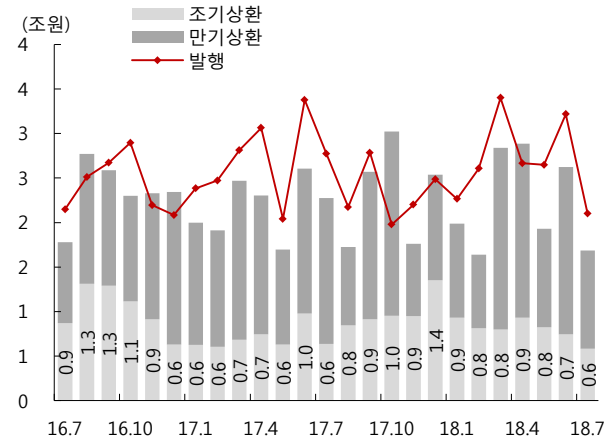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증권사별 채권보유 현황, 2018 년 3 월말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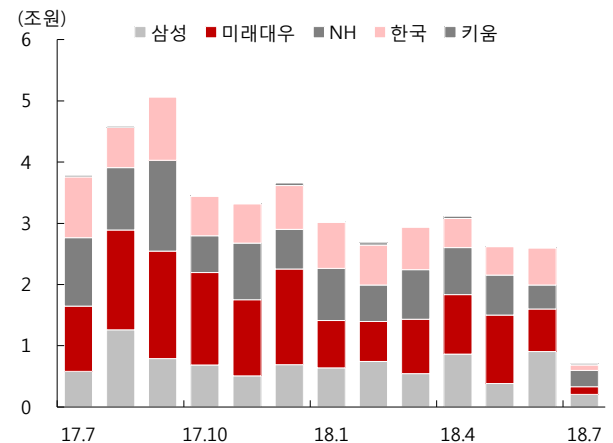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업계 DLS 조기상환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

키움증권을 제외한 증권사의 ELS 조기상환은 55.6%~86.7%감소

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 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 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강승건, 최영수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 등급)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 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(2017 년 7 월 1 일부터 적용)

- Buy(매 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-06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93.9%	6.1%	-